

노사발전재단, 캄보디아 진출 기업 노동분쟁 대응책 모색

현지 노동법·노동환경 동향 공유
노동법상 쟁점·실무 정보 제공

12월부터 AI 활용 정보 서비스로
기업 정보 접근성·활용도 제고

노사발전재단이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노동법 및 규제 정보 제공에 나섰다. 특히 이와 관련해 개최한 세미나 자리에 현지 정부관료 등을 초빙했다. 이 나라의 노동·산업안전·환경 관련 제도 및 현장점검 체계가 지속적으로 바뀌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캄보디아 노동법 및 노동환경 동향’ 주제이 세미나는 17일(현지시간) 프놈펜에서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로 열렸다. 재단은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전문지원기관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사로 나선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전문가 등은 현지의 최신 노동법·노동환경 정보를 공유했다.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관계자는 기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국내기업 경영지원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노사발전재단

업의 인사·노무관리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지는 노동법상 쟁점을 소개했다. 또 현지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점검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업이 현지 규제와 점검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정보를 제공했다.

전문가 발표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

가 기업의 노무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과제 등이 공유됐다. 기업들이 당장의 법령 준수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노무관리 과제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왔다.

재단은 그간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현지 노동법과 제도 변화에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국가별 노동법·노무관리 정보 제공, 인사·노무 상담, 현지 세미나 등이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도 기업들이 실제 노무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세부 내용을 안내했다.

아울러 올해 12월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원에 나선다. 기업이 필요한 국가별 노동법과 노무관리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해외 노동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재단은 앞서 이달 16일에 캄보디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단의 노동분야 전문성과 KOCHAM의 현지기업 네트워크를 연계해 노무관리·노동분쟁 예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간담회도 가졌다. 양 기관 간 기존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노동법 준

수와 안정적인 노무관리 지원을 위한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재단은 ‘현지 노동정책·제도 변화 파악→최신 노동정보 제공→기업 애로사항·수요 청취→현지 관계기관과 연계한 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노동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 변화와 노동감독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지 정부와 대사관, 경제단체 등과의 협력망을 활용해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며 “노무관리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을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수자원공사, 기후테크 스타트업 9곳 투자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 정기총회
민간 투자기관 참여 39곳으로 확대
현재까지 179개사에 1767억 투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민관 투자기관과 협력해 성장 단계에 접어든 혁신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공공 및 민간 39개 기관이 참여하는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 정기총회와 유망기업 기업설명회(IR)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망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수자원공사의 지원으로 성장 궤도에 오른 유망 스타트업 9개사가 참여해 물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이차전지 등 연관 산업의 기후테크 혁신 기술을 선보여 참석 기관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는 유망기업 투자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한국수자원공사는 9월 15일~16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공공 및 민간 39개 기관이 참여하는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 정기총회와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수자원공사

2022년 12개 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공공과 민간 벤처캐피탈(VC)의 참여가 이어지며 올해 39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됐다.

총회에서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방안과 함께 수자원공사가 출자한 벤처펀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수자원공사는 2018년부터 총 13개 펀드에 1199억원을 출자했으며, 정부·지자체·VC 등과 손잡고 조성한 물산업 전용 투자 재원만 3552억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179개 기

업에 1767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한성용 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협의회를 통해 혁신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연계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펀드의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다지고, 혁신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여 국내 벤처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직계가족 위해 실속형 명절 선물 구매”

농진청, 추석 선물 구매기준 설문

명절 선물 관련해, 과대 포장된 선물세트보다는 실속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 2명 중 1명은 ‘가족’에게 줄 선물 구매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추석 농식품 소비변화 파악 및 농업경영체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수도권 거주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 구매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소비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소비 가치는 ‘맛과 실속’ (45.9%)·‘시간과 삶의 질’ (39.4%) 순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85%를 차지했다. 또 명절 과일 등 농산물도 한 번에 먹기 좋은 실속형 상품을 구매하는 게 가치 있다는 응답이 75.4%에 달했다.

명절 선물은 ‘직계가족 위주’로 한다는 응답이 47.3%였다. 가족에게 선물을 집중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형식적인 인사치레

보다 가족을 챙기는 소비가 더 의미 있어서’ (46.9%)라고 답했다. 구매 품목으로 신선·혼합 과일 세트(31.3%)와 건강기능식품(26.6%) 등을 선호했다.

이들의 58.3%는 추석 직전 한 번에 구매하기보다 추석 전후로 분산 구매한다고 답했다. 추석 1주일 전 구매액도 감소했다는 응답(38.5%)이 증가(28.6%)보다 높았다. 명절 이후 구매가 늘어난 소비자가운데 41.2%는 필요한 식품을 추석 이후 나눠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선물이나 음식 모두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구매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추석 선물의 온라인 구매 비중은 10년 전 9.0%에서 최근 37.4%로 증가했다. 명절 음식 장보기도 온라인으로 한다는 비중이 2.0%에서 21.0%로 높아졌다. 온라인 이용 이유로는 ‘배송 편의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농진청은 가격뿐 아니라 편리함이 중요한 구매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중부발전, 국내 첫 임직원 참여 ‘AI 에이전트 플랫폼’ 구축

자체 생성형 AI ‘하이코미’ 기반
반복 업무, 자연어 입력으로 루틴화

한국중부발전이 임직원이 직접 업무 자동화 기능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하이코미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축해 17일부터 사내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용자가 업무 자동화 루틴을 직접 기획해 공유하고 재사용하는 방식의 플랫폼 운영은 국내 최초 사례다.

이번에 선보인 플랫폼은 한국중부발전의 자체 생성형 AI인 ‘하이코미’를 기반으로 구축됐다. 중부발전은 지난 2024년 12월 전력그룹사 최초로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사내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2025년 12월 실제 과업을 수행하는 행동형 AI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AI 기술 도

입에 앞장서 왔다. 이번 플랫폼은 기존 서비스를 한 단계 고도화한 것으로, 임직원의 업무 자동화 노하우가 시스템에 축적되고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는 ‘참여형 생태계’를 조성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새로운 플랫폼의 핵심 축은 ‘사용자 주도성’과 ‘공유’다. 코딩 지식이 없는 일반 직원이라도 자연어로 원하는 기능을 요청하기만 하면 AI 에이전트가 이를 분석해 즉각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특히 반복적인 업무를 자연어 입력만으로 ‘루틴(Routine)’화할 수 있으며, 실제 실행 시 에이전트가 사내 시스템에 접속해 필요한 절차를 스스로 수행한다.

이렇게 개인이 만든 결과물과 루틴은 플랫폼 내에서 자유롭게 공유된다. 활용 사례가 쌓일수록 플랫폼 전체의 기능과

업무 효율성이 함께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춘 셈이다. 이를 위해 중부발전은 ▲AI의 시스템 화면 직접 조작 기능 ▲사내외 자료 스마트 검색 ▲내부 데이터 자동 추출 및 요약 등 최신 기술을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플랫폼에 적용했다.

중부발전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피드백 반영과 활용 도구 확대를 통해 해당 플랫폼을 사내 대부분의 업무를 지원하는 범용 AI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플랫폼을 통해 직원 개개인이 자동화의 주체가 되어 반복 업무를 줄이고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 직원이 참여하는 디지털 혁신 문화를 조성해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수자원공단, 어촌-소비자 직거래 지원

부산어촌특화센터, 지역 특화상품 개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어촌지역 생산자의 유통단계 간소화 및 판로 확보 지원에 나섰다.

수산자원공단 부산어촌특화센터는 부산지역 어촌공동체가 생산한 수산물과 어촌특화상품에 대한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달 상순 부산시청에서 열린 ‘추석맞이 수산물 상생할인 직거래 장터’ 참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추석맞이 수산물 상생할인 직거래 장터에는 부산지역 대변어촌계와 대항이레마을협동조합이 참여했다. 다시마와 멸치, 미역, 문어, 톳국수, 굴비 세트 등 어촌특화상품을 선보였다.

이 직거래장터는 어촌공동체가 생산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이고 판매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지원 중인 직거래장터.

다. 유통단계를 줄이고 생산자의 실질적 소득 증대와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단 부산어촌특화센터는 대항이레마을협동조합과 함께 신규 어촌특화상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톳국수에 생면과 굴·바지락·문어 등 제철 수산물을 접목한 밀키트형 상품 개발을 검토 중이다. 제품 구성 및 상품화 방향을 구체화한 뒤 상품 완성도를 위해 10월 중 전문가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